

국산자동차, 세계를 향해 뚝뚝뚝뚝~

50~70년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성장사

2016년 우리나라는 450만 대의 생산자동차 중 306만 대를 수출하여 489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오늘날의 도약이 있기까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동차 강국을 향해 구슬땀을 흘렸던 50~60년대 사람들의 노동을 살피본다. <출처 : 국가기록원>



첫 고급형 국산자동차 '시발 세단'(1957)

1955년 미군이 쓰던 지프차를 손으로 두드리고, 국산 엔진을 얹어 시발자동차를 만든 후 1957년, 고급형인 '시발 세단'을 생산해 시험 주행했다. 당시 시발 세단은 최신식 국산승용차로 소개되었다.



'새나라자동차 공장' 준공식(1962)

1962년 경기도 부평에 최초의 현대식 자동차공장 '새나라자동차' 공장이 건설된다. 재일교포 박노성 씨가 설립한 새나라자동차는 일본 닛산의 '블루버드'를 '새나라'라는 이름으로 들여와 재조립해 생산했다.



신진공업(주)의 국산자동차 및 부품 전시회(1964)

부산의 신진공업에서 처음으로 국내 77개 협력공장 에서 제작한 부품들을 모아 소형차를 조립, 제작하는데 성공한다. 차 전체의 97%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에 서울시청 앞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